

# “한미FTA 2월 처리 공감”

■ 盧대통령-李당선인 비공개 회동

盧 “물류 측면서 해양부 통합 맞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청와대 관저에서 비공개 회동,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한미 FTA 비준문제에 대해 이 당선인이 ‘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처리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적극 공감했다”면서 “두 분이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또 “두 분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면서 “통합민주당이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물류의 측면에서 보면 통합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양수산부 문제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해양부 폐지를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분이 대화하던 중에 해양부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물류 측면에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수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또 협의의 차원에서 이뤄진 언급도 아니다”고 말했다.

했다. 천 대변인은 “협의나 합의가 이뤄지는 자리 아니고, 편안하게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로 해양부 통합은 물류 측면에 대해서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공감한 것일뿐”이라며 “찬성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히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도 기존의 입장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조직개편안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여러 대화를 나눴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 당선인측이 노 대통령의 해당 발언만을 공개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의 이날 회동은 ‘취임 전 두 분이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지난 번 만남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오전 10시부터 1시간45분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유우의 대통령실장 내정자가 배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명박 정부 취임식 초청 광주·전남 이색 인물들

## “대불산단 문제점 꼭 해결해 주었으면”

산업현장 근로자 정기환 대한조선 선박조립반장

“대불산단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리모델링 좀 해주세요.”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불산단업자 노동자 대표로 초대받은 정기환(39·사진)대한조선 선박조립반장은 18일 “대불산단의 열악한 환경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의 산업현장 근로자 중 근면·성실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인재로 뽑혀 초대장을 받은 정 반장은 “최근 이



정반장과 가로수 때문에 대형 선박부품을 운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불산단의 문제점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반장은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원가상승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불산단을 하루 빨리 리모델링해 세계적인 선박산업단지로 키워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 조립분야에서 11년째 근무중인 정 반장은 또 “3D업종으로 꼽히는 조선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조선산업 인력 양성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양=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주여성 인권 향상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정 대표 김투이·오종오 부부

“이주여성들이 한국을 내 조국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문화 가정 대표로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식에 남편과 함께 초대받은 베트남 여성 김투이(37)씨는 “한국의 대통령을 직접 뵈게 돼 너무 영광스럽다”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97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해남으로 시집 온 김투이씨는 해남 북평면사무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주 1회씩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다.

김투이씨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이주여성의



김투이(오른쪽)씨와 함께 초대받은 남편 오종오씨.

인권 향상 문제를 부탁드립니다”며 “개인적으로는 백혈병 치료 때문에 21

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친언니가 완쾌돼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조그마한 소망을 담았다.

11살과 10살 된 아들 2명을 두고 있는 김투이씨는 “처음엔 언어문제 등으로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외국인 이주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나에게 한국은 제 2의 조국이 고국이었다”고 말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 오종오(45)씨는 “아내 덕분에 생애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며 즐거워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인수위 자문위원 ‘집단항응’ 파문

인천시서 고가 식사 접대...관련자 2명 사표수리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9명이 인천시 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식사 접대와 지역 특산품을 선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고종완(주)RE켄버스 대표가 자문위원 자격을 이용해 고객 상담을 했다가 해임된 데 이어 이병 향응 파문이 일면서 인수위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

18일 인수위와 경인일보 등에 따르면 자문위원 등 인수위 관계자 9명은 지난 15일 낮 지인 23명과 함께 강화도의 한 유명 장어 집에서 4인분 기준 16만원 상당의 장어요리를 인천시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 이들은 15일 서울 롯데백화점 앞에서 인천시가 제공하는 버스로 이동, 강화도 음식점에서 오

후 1~2시까지 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대금은 총 189만원으로, 인수위 국가경쟁력특별위원회 비상임 자문위원이자 인천시 물류특보인 박창호 교수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 중에는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3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강화군 측은 식사 후 서울로 돌아가는 일행 32명 전원에게 지역 특산품인 순무김치와 육환 등을 선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관계자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며 “식사 비용은 확인해 보니 인천시 결제 카드를 이용했고, 다음날 점심 식사를 제안한 교수가 학교 카드를 다시 정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하지만, 민주당 김상희 최고위원은 이날 “인수위는 출범 초기 지역에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현장방문 자체를 내부지침으로 했는데 현안 없이 지역에서 장어 먹고 술도 마시고 선물까지 받아왔다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시작부터 권력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사찰·권력남용·향응집대의 구태정치 3박자를 고루 갖춘 인수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은 관련자를 즉각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허중수 인수위 기후변화·에너지 TF 팀장과 박창호 비상임 자문위원이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 “빈부 해소...담담한 서민생활 풀어주길”

광산구청 환경미화원 임화택 씨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펼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자녀를 둔 광주시 광산구청 청소지도계 환경미화원 임화택(50·사진)씨는 새 대통령이 담담한 서민생활을 풀어주길 기대했다.

임씨는 “나라가 발전하면 모든 국민에게



임씨의 환경미화원 경력은 14년. 새벽부

터 나가 맘뉘려 일하지만 매년 지급되는 작업복과 신발 등의류지급비는 고작 10여만원으로 몇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다.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환경미화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열악한 수준이다.

임씨는 “새 정부가 미화원의 복지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면서 “부디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생활이 여유로워지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kwangju.co.kr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2008년 (제6기) 한자 한문 지도사 자격모집

한수실명: 1. 2월 19일(화) 14:00 ~ 2월 20일(수) 14:00, 2. 2월 21일(목) 14:00 ~ 2월 22일(금) 14:00, 3. 2월 23일(토) 14:00 ~ 2월 24일(일) 14:00, 4. 2월 25일(월) 14:00 ~ 2월 26일(화) 14:00

한수특별특선: 1. 2월 19일(화) 14:00 ~ 2월 20일(수) 14:00, 2. 2월 21일(목) 14:00 ~ 2월 22일(금) 14:00, 3. 2월 23일(토) 14:00 ~ 2월 24일(일) 14:00, 4. 2월 25일(월) 14:00 ~ 2월 26일(화) 14:00

한수특별특선 접수처: 1. 전화 1522-0000, 2004, 2005, 2. 팩스 1522-0001, 3. 인터넷 1522-0002

한자한문지도사자격시험위원회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하는 마술사들의 놀이이다. ...

수료/입/퇴/강수: 1. 마술사 2. 마술사 3. 마술사 4. 마술사 5. 마술사 6. 마술사 7. 마술사 8. 마술사 9. 마술사 10. 마술사

마술지도사 강사취업 연구생 모집(마술지도사 자격증 과정)

마술사 1. 마술사 2. 마술사 3. 마술사 4. 마술사 5. 마술사 6. 마술사 7. 마술사 8. 마술사 9. 마술사 10. 마술사

수료후특선: 1. 마술사 2. 마술사 3. 마술사 4. 마술사 5. 마술사 6. 마술사 7. 마술사 8. 마술사 9. 마술사 10. 마술사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

40년 전통의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박승!!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3월 3일

광주고시학원

98.7

02-2007-0003

02-2007-0004

02-2007-0005